

『영미연구』

제59집 (2023): 175-198

<http://doi.org/10.25093/ibas.2023.59.175>

# 『전염병 일지』 혼종 서사 문체 번역의 고려사항들: 인본주의 서사로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 정 은  
단독 / 한국교통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8세기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의 『전염병 일지』가 실증 자료와 그에 대한 가치 평가적 해석, 역사와 허구를 결합한 혼종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 서사 양식이 제기하는 번역상 고려사항들을 검토한다. 작품의 화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기록자로서의 정체성과 기록의 진위보다 그에 대한 해석과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더 중시하는 논평가/이야기꾼의 정체성을 동시에 운용한다. 그리고 그 운용 과정에서 특정한 문체적 특징들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어휘 선택, 대명사 사용, 시제 변화 방식에서 나타나는 『전염병 일지』 특유의 문체적 특징이 서사의 사실성과 정서적 감응력을 전략적으로 결합, 운용해야 할 저자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필요가 궁극적으로 인본주의 서사의 목적, 즉 실증 자료를 독자를 계몽하고 그들을 특정한 인본주의적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적(affective) 서사 구성 요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임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이 지향을 구현하는

---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작품의 문체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착 언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전염병 일지』 번역의 중요 과제임을 주지하는 한편 기출간된 세 종의 번역본이 논의된 문체적 특징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검토하고 평가한다.

**주제어:** 다니엘 디포, 『전염병 일지』, 혼종 서사, 인본주의 서사, 문체 번역

## 1. 들어가며

1722년 출간된 영국 작가 디포(Daniel Defoe)의 『전염병 일지』(*A Journal of the Plague Year*)는 출간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르를 결정하기 어려운 혼종 서사(hybrid narrative)로 분류되어왔다.<sup>1)</sup> 역사적 사실과 허구, 객관적 기록과 주관적 감상이 주종을 구분하기 어렵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작품 끝에 H.F라는 초성 서명만을 남긴 화자는 1665년 런던의 대규모 전염병 발발과 전개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의도를 반복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1665년 페스트 창궐 당시 런던시에 포고되었던 실제 전염병 관리 조례, 교구별 사망 주보, 약 광고문이나 부적 이미지를 인용, 삽입하는가 하면 잠입 취재라도 하듯 출입이 금지된 감염 사망자 매립지를 한밤에 찾아가 매립지와 시체 매장 방식을 자세히 관찰,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화자는 자료에 기초한 기록들 사이로 자신이 보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들, 많은 경우 본인이 강조하듯 오래되어 기억이 선명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들은 탓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와 소문들을 엮어 넣는다. 그 결과 사망 주보의 통계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전염병의 진행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연대기적 서사 축과 그 연대기적 기록의 일관성을 깨며 삽입된, 선후 관계가 분명치 않고 진위 확인이 어려운 삽화적 이야기들의 또 다른 서사 축이 계속해서 교차하며 작품의 혼종 서사를 구성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오랫동안 『전염병 일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작품의 혼종 서사 양식이 제기하는 번역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작품의 화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기록자로서의 정체성과 기록의 진위보다 그에 대한 해석과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평가, 그리고 이야기꾼의 정체성을 동시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문체적 특징들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어휘 선택, 시제 변화, 대명사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염병 일지』의 문체 특징이 서사의 사실성과 정서적 감응력을 전략적으로 결합, 운용해야 할 저자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필요가 궁극적으로 인본주의 서사의 목적, 즉 실증 자료를 독자를 계몽하고 그들을 특정한 인본주의적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서적 서사 구성 요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임을 논증한다. 최종적으로 저자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 문체적 특징을 한국어로 옮길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기출간된 3종의 번역본들이 논의된 문체적 특징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이 문체번역을 둘러싼 번역학적 논의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인본주의 서사로서의 지향 때문에 『전염병 일지』라는 한 작품이 드러내는 문체적 특징을 어휘, 대명사, 시제 사용에 제한해 분석하고, 이를 번역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문체번역에 대한 번역학 내의 선행연구에 기반하거나 그에 응답하는 연구가 아니라 『전염병 일지』라는 개별 작품의 특정 문체가 제기하는 번역상 고려사항을 검토하는 사례 연구임을 밝힌다.

본문의 논증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절에서는 18세기 서구 인본주의 서사의 형성 배경과 그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역사학자 라케르(Thomas W. Laqueur)의 설명을 소개하고 『전염병 일지』를 인본주의 서사의 한 예로 규정한다. 라케르는 18세기 유럽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재난의 원인과 결과를 신이나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윤리적 실천을 통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가진 일련의 서사를 ‘인본주의 서사’로 명명한다. 그리고 이 서사 양식이 어떻게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규명할 실증 자료를 수집해 제시하는 한편 이런 자료를 재난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으로 독자를 초대하기 위한 설득의 서사로 재구성하는지 논증한 바 있다(Laqueur 177-78). 본문의 첫 절은 사료와 허구를 교차 직조하는 『전염병 일지』의 혼종 서사를 인본주의 서사 양

식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작품이 인본주의 서사의 형식과 의도를 어떤 점에서 공유하는지, 이 형식과 의도가 어떤 문체상 특징을 가져오는지 설명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궁극적으로 인본주의 서사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작품의 혼종 서사가 특정 어휘의 선택, 대명사와 시제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평가를 드러내고 2) 기록과 허구를 교차 직조하되 독자의 특정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각 요소를 결합,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더하여 현재 출간된 세번역본이 원문의 이런 문체적 특징을 도출 언어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대안을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전 세계적 코비드-19(COVID 19) 유행 상황이 『전염병 일지』 재번역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음을 설명하고, 고전의 새로운 번역을 통해 대규모 전염병 상황에 대처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재번역 동기를 고려할 때 재난에 대한 인본주의적 지향을 드러내는 작품의 문체 특징 번역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한다.

## 2. 인본주의 서사로서의 『전염병 일지』

1720년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Marseille)에서 페스트로 4~6만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영국은 10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1665년 발생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자국에도 다시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전염병 일지』의 노튼(Norton) 판 편집자 서문에서 백세이더(Paula R. Backscheider)가 밝히듯 1722년 출간된 『전염병 일지』는 무엇보다 디포가 이 “임박한, 아마도 피할 길 없을”(ix) 국가적 재난을 예상하며 동료 시민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쓴 글이다.<sup>2)</sup> 작가의 의도를 대변하듯 표지에서 자신을 1665년 페스트 발발 당시 “계속 런던에 머물렀던 한 시민”(3)으로 소개하는 화자는 본문에서 여러 번 이후 “같은 재난”을 겪는 사람들이 “행동 지침”(11)으로 삼기를 바라며 이 기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난 1665년의 전염병 대유행 기간 중 런던에서 발생한, 가장 놀라운 사적 및 공

적 사건들에 대한 관찰 혹은 기록”이라는 긴 부제는 작품의 형식을 시작부터 “관찰 혹은 기록”으로 규정한다. 화자 역시 기록자로서 논평을 펼치기보다는 “사실만을 주목”(32)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그러나 부제의 형식 규정이나 화자의 의지와 달리 『전염병 일지』는 평가나 의견 없는 사실적 기록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염병 진행 단계를 따라 지역별 주간 사망자 수를 제시하고 사망자 수의 변화 추이에 근거해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한편 바람직한 혹은 피해야 할 시민의 대응 양식을 기록해 넣으면서 전염병의 매 국면에 취할 공적이고 사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화자는 전염병 초기 사람들이 병을 피하려고 액막이나 부적을 사는 풍습을 묘사한 뒤 실제 사용된 부적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의 부덕과 아둔함을 한탄하며 한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기록하면서 나는 단지 사실만을 주목하고자 하며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만을 밝히고자 한다”(32)라고 논평을 삼가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논평을 삼가겠다는 말 바로 뒤에 화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조치들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후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그 끔찍한 부적과 야릇한 물건들을 목에 매단 채 각 교구의 공동 매립지로 던져졌는지는 차츰 이야기하게 될 것”(32)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사실상 부적과 액막이를 팔고 사는 풍습을 분명하게 비판한다. 감염 가옥 관리와 시체 및 감염 물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런던시의 1665년 실제 전염병 규제 조례를 거의 원문 그대로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화자는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조치 덕에, 나라 전체에서 한 주에 거의 천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때도 [런던] 시내의 사망자 수는 28명에 불과했고, 전염병 창궐 기간 내내 런던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었다”(35)라는 문장에서 저자는 지역별 사망자 수 차이에 근거해 대유행 초기에 시행된 런던시의 전염병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재난 시기에 대한 관찰 기록과 역사적 자료를 독자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서사로 재구성하는 『전염병 일지』는 라케르가 ‘인본주의 서사’라고 부르는 서사 양식의 주요 특징을 공유한다. 라케르는 18세기 초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하는”(177) 새로운 서사 양식이 유럽에서 등장했으며 이런

기술의 목적이 고통을 받는 사람과 그 고통에 대한 기록을 읽는 독자 사이에 “인과의 사슬”(177), 즉 개입을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인과를 형성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주의 소설, 의료 기록 및 부검 보고서, 재난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을 포괄하는 이 서사 양식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개입해 고통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인간의 인식 능력 및 도덕적 행위 능력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동시에 그 믿음을 시대정신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갱도에서 질식사한 광부의 부검서는 건조한 의학 소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환기구의 부재를 사망 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의 설치를 촉구하는 실천적 지침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암묵적으로 독자를 그 지침의 실천으로 초대하고 있었다고 라케르는 지적한다. 아울러 인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신과 운명에서 동료 인간에게 이전되는 인식 구조의 전환 속에서 부검서와 사회 실태 보고서 등에 차용된 조사 기록 양식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실천적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정적 요소와 결합해 “인본주의 서사” 양식을 낳게 되었다고 논증한다(Laqueur 191-93).

오랫동안 작품의 주요 특징으로 논의된 『전염병 일지』의 혼종 서사는 상당 부분 작품을 “인본주의 서사”로 구성하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역사적 자료와 그에 대한 평가 및 해석, 사실과 허구적 이야기의 교차 구성을 통해 작가가 추구한 것은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염병 도래를 예견하고 있던 1722년 영국의 동료 시민들에게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영육(靈肉)의 지침을 제공하고 그 지침을 따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위해, 디포는 역사적 기록을 제공하되 이를 공리적 지향을 가진 서사,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특정한 선택, 즉 전염병이라는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인도하는 서사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바로 이 인본주의 서사로서의 지향이 사망 주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대기적 기록과 삽화적 이야기, 소문, 환자의 내적 성찰과 고백 등을 교차 직조하는 『전염병 일지』의 혼종 서사 구성 원리로 작동한다. 다음 절에서 예증하겠지만 이 지향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주관적 해석 및 논평이 배치되고,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르포

적 서술과 특정한 정서적 효과를 의도하는 허구적 이야기가 교차 직조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염병 일지』는 여러 번 그 기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염병이 어떻게 “인간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했으며 감히 “의사들이 신의 심판을 막기를 기대할 수 없는”(34) 상황에 이르렀는지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묘사의 순간에조차 작품은 전염병을 전적으로 불운이나 천벌로 받아들이기보다 합리적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즉 인간적인 개입이 가능한 재난으로 이해한다. 이를테면 신의 심판을 의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한 문장에 바로 이어 화자는 “물론 의사들이 기술과 지혜, 약 처방으로 많은 이의 목숨을 구하고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켰음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다”(34)고 부연하는가 하면 연이어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런던의 공무원들이 취한 행정 조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일견 불가해하고 손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인간적 개입이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재난에 대처할 특정한 공리적·도덕적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한 인본주의 서사를 창작한 것이다.

전염병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자료들을 계몽적이고 공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자는 자료의 객관성과 주관적 논평의 가치 평가적 요소, 진위 파악이 어려운 일화나 과장된 소문들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결합한다. 독자를 특정한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 결합은 특히 어휘 선택과 시제, 대명사 사용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어지는 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작품이 이 세 요소를 운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런 운용의 결과 나타나는 문체상 특징이 어떤 번역상 고려사항들을 제기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2023년 현재까지 출간된 세 종의 한글 번역본이 논의된 요소들을 어떻게 도착 언어에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하는 한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일부 대안을 제시한다.

### 3. 『전염병 일지』의 문체 특징과 번역상 고려사항들

먼저 제목에 사용된 단어 “plague”의 함의를 중심으로 『전염병 일지』가 어떻게 실증적인 동시에 가치 평가적인 어휘를 선택해 일관성 있는 주제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665년 런던의 페스트 창궐과 그 소멸 경위를 기록한 『전염병 일지』는 작품 창작 시기까지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던 전염병에 대해 의과학적인 동시에 종교적인 접근을 취한다. 그러나 일견 상반되는 두 접근은 모두 앞서 말한 작품의 인본주의적 동기, 즉 전염병을 인간적 인식과 개입의 대상으로 제시하려는 동기를 공유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병과 신의 징벌이라는 의미를 모두 지닌 “plague”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작품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표현된다. 작품의 시작 부분이 묘사하듯 사람들은 전염병이 외국 감염 지역의 “화물”(5)에 묻어 영국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화물에 묻어 이동한 것처럼 감염자와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했다(Landa 278-79). 감염자 혹은 감염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고 생각했으므로 병자의 증상을 진찰해 감염 여부를 결정하는 의학적 조치와 감염이 확인되면 타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염병 일지』는 무엇보다 1665년 전염병 발발 당시 런던시가 취한 이런 보건 의학적이고 행정적 조치를 세세히 기록하고 그 공과를 평가함으로써, 후대가 다시 전염병을 겪을 때 참조할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이다. 다른 한편 작품은 반복적으로 전염병을 “신의 심판”(34)으로 부르거나 하면 전염병의 소멸 역시 “처음 심판을 위해 우리에게 이 병을 보낸 그의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손”(191)이 베푼 구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염병을 천벌로 묘사할 때조차 작품은 병을 전적으로 불가해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지도층과 일반 시민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해석한다. “왕가의 숨길 수 없는 악덕”이 “나라 전체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 것일지 모른다”(17)고 주장하며 전염병을 지배층의 타락에 대한 신의 징벌로 해석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신의 분노를 산 끝에 파괴될 운명에 놓였던 성경 속 도시 니느웨(Nineveh)와 런던을 비교하



기도 하기 때문이다(29). 전염병에 대한 종교적 해석 역시 지도층과 시민의 타락을 비판하고 도덕적 정화를 촉구하려는 개혁적 동기를 위해 차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대를 위해 1665년 런던의 페스트 발발과 진행 상황을 기록하며 화자는 병에 대한 의과학적이고 종교적인 접근 양자를 통해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의학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전염병을 지시하기 위해 작품은 “plague,” “distemper,” “illness,” “sickness” “disease” 등의 다양한 단어를 쓴다. 이중 “distemper,” “illness,” “sickness,” “disease”가 중층적 의미 없이 대체로 “병증,” “병,” “질병” 등으로 해석되는 반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 정의가 보여주듯 “plague”에는 전염병이라는 의미에 더해 “특히 신의 분노나 정의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시련, 재난, 피해 혹은 신의 처벌이나 응징”(A particular affliction, calamity, or evil, esp. one interpreted as a sign of divine anger or justice, or as divine punishment or retribution, "Plague, n.")의 의미가 있다. 전염병을 지시하는 여러 단어 중 작품 제목에 “plague”를 사용하고 본문에서 이 단어를 가장 빈도 높게 쓴 것은 전염병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이해와 견해를 반영하는 선택이다.<sup>4)</sup> 즉 대규모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행정적, 도덕적 차원의 개입과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작품의 진단과 제안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병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드러내는 “plague”의 중의적 뜻을 살릴 번역어를 찾는 것은 중요한 번역상 과제이다.

2023년 현재까지 출간된 세 권의 번역서에서 “plague”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2006년 박영의 번역으로 신원문화사에서 출간된 국내 첫 번역본은 *A Journal of the Plague Year*라는 작품 제목을 『전염병 연대기』<sup>5)</sup>로 옮기고 본문에 사용된 “plague”는 거의 예외 없이 “페스트”로 옮겼다. 2020년 도서출판 부글에서 정명진 번역으로 출간된 두 번째 번역본은 제목을 『페스트, 1665년 런던을 휩쓸다』<sup>6)</sup>로 번역하고 본문에 사용된 “plague”는 많은 경우 “페스트”로 옮겼지만, “전염병”으로 옮긴 경우도 다수 있으며, 이 경우 단어 선택의 뚜렷한 규칙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영어본 5면에 “plague”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정명진은 첫 번째 “plague”는

“전염병”으로 두 번째 “plague”는 “페스트”로 번역한다(『페스트』 12-13). 또 영어본 16면에 네 번 사용된 “plague”의 경우 첫 두 번은 “전염병”으로 나머지 두 번은 “페스트”로 옮겼다(『페스트』 34-35). 2023년 열린책들에서 서정은 번역으로 출간된 세 번째 번역은 제목을 『전염병 일지』 7)로 옮기고 본문에 사용된 “plague”는 거의 예외 없이 “페스트”로 옮겼다.

요약하면 단어 사용의 빈도와 일관성의 차이는 있지만, 세 번역 모두가 제목과 본문에서 “plague”를 “전염병” 혹은 “페스트”로 번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역은 아니지만, 이 두 번역어는 모두 “신의 처벌이나 응징”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염병이라는 사태를 의과학적인 동시에 종교적, 도덕적으로 해석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 결과 전염병에 대한 실증적 기록이 곧 그 재난 상황에 대한 인문적 해석이자 특정한 실천적 행동에 대한 요구이기도 한 작품의 성격을 번역어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lague”를 전염병 자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역귀(疫鬼)를 의미하기도 하는 한자 “역”(疫)을 써서 “역병”(疫病)으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양 문화에서 역귀가 언제나 “신의 처벌이나 응징”을 대리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역귀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든, 역귀를 물리치기 위한 공동체의 집단적 정죄와 정화 의식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역사에 널리 존재한 문화이다.<sup>8)</sup> 따라서 “plague”를 “역병”으로 번역함으로써 근대적이고 의과학적인 대처와 함께 공동체의 도덕적 쇄신을 전염병 퇴치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 디포의 관점을 더 성공적으로 도착 언어에 반영할 수 있다.<sup>9)</sup> 특정 행동의 유도를 위해 실증적 사실과 가치 판단적 해석이 결합된 어휘를 선택하고 이를 주체어로 일관성 있게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도착 언어에 반영할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사료와 허구를 교차 직조하며 인본주의 서사의 지향을 구현하는 작품의 또 다른 문체적 특징은 시제와 대명사의 전략적 사용인데, 디포는 이를 주로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 및 상황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한다. 먼저 대명사 사용 방식을 살펴보자. 『전염병 일지』가 교구별 사망 후보를

중심으로 전염병의 진행 추이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한편 기억이 선명하지 않거나 전해 들어 진위가 분명치 않은 소문 혹은 이야기를 중간중간 삽입한다는 사실을 앞서 언급했다. 작품이 표방하는 르포적 기록의 정확성과 연대기적 기록의 일관성을 훼손 하면서 선명치 않은 기억,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서사에 포함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 사건에 저자의 가치 판단을 덧붙이고 독자를 그 판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야기를 통해 자료 중심 기록만으로는 생산하기 어려운 정서적 효과를 독자에게 불러일으키고, 최종적으로 그 감정이 독자를 특정 행동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인물에 대한 독자의 동일시 여부와 정도를 조절하는 한 방식으로 대명사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런던의 동료 시민을 지시할 때 화자는 주로 “사람들”(people)이나 “대중”(public)이라는 중립적 명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전염병을 피하려고 무당이나 돌팔이 의사에게 의지하는 어리석은 군중을 지칭할 때는 아래 제시된 인용문 ③번의 “the common people”을 ④⑤⑥번처럼 3인칭 대명사 “그들”의 변화형 “they” 혹은 “their”로 지시해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 도시는 타락했으며 병에 대한 합리적 대처와 개심만이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성경 속 도시 니느웨처럼 런던을 구할 것이라고 제안할 때는, 계몽과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런던 시민인 ①번의 “the people”이 ②에서 보듯 화자 자신을 포함하는 대명사 “우리”(we)로 교체된다.

그러나 이런 환난의 시기에 올바르게 활용되었다면 은혜롭게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로운 구원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연민을 간청하게 함으로써 우리 런던을 두 번째 니느웨로 만들 수도 있었을 이런 유익한 상념도 생각이 어리석고 무지한 대중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에도 짐승처럼 거칠고 생각 없이 살던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도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질렀다.

But even those wholesome reflections—which, rightly managed, would have most happily led ① the people to fall upon their knees, make confession of their sins, and look up to their merciful Saviour for pardon, imploring His

compassion on them in such a time of their distress, by which ② we might have been as a second Nineveh—had a quite contrary extreme in ③ the common people, who, ignorant and stupid in ④ their reflections as ⑤ they were brutishly wicked and thoughtless before, were now led by ⑥ their fright to extremes of folly. (29)

같은 런던 시민들을 개혁과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우리”와 공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는 “그들”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심리적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인 가옥 봉쇄 정책으로 고통받는 동료 시민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배가된 비극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화자는 비슷한 전략을 활용한다.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①“우리”(we)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독자를 화자와 함께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청자로 호명함으로써 독자가 봉쇄 정책에 대한 화자의 비판과 희생자 시민에 대한 그의 연민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족들이 겪는 비참함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가의 병을 지켜보고, 그렇게 갇힌 상황으로 인한 공포로 죽을 만큼 놀라고 겁을 먹은 사람들의 가장 비참한 비명과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 곳은 대개 이런 집들이었다.

The misery of those families is not to be expressed; and it was generally in such houses that ① we heard the most dismal shrieks and outcries of the poor people, terrified and even frightened to death by the sight of the condition of their dearest relations, and by the terror of being imprisoned as they were. (50)

비슷하게 작품은 소개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와 동일시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시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선명치 않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연을 소개할 때 화자는

그 사실을 밝힌다. 사망 주보에 공개된 수치나 런던시의 전염병 규제 조례 같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록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그 사연을 소개한 경우, 화자는 사실 여부가 분명치 않은 사연에 동반된 감정이나 정보의 생생함을 환기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이를 테면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제정신을 잃은 한 부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화자는 부인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실치 않다”(It is so long ago that I am not certain, 50)고 부연한다. 그러나 사연을 소개하는 문단에서 화자는 이 부인을 포함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I remember, and while I am writing this story I think I hear the very sound of it, 50)고 사연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을 현재형으로 전달한다. 감정의 현재성으로 “확실치 않”은 기억을 보완하고 그 현재성을 가능하게 한 감정의 강렬함으로 정보의 사실성만으로 보장되지 않는 독자의 감정이입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전염병을 피해 런던 외곽 숲에 천막을 치고 병이 지나갈 때까지 무사히 버틴 세 남자 이야기를 전할 때도 화자는 같은 시제 운용 방식을 보인다. 화자는 먼저 “독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을 요구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는다면”(52),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따를만한 예로서 세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교훈이 있으므로 오류가 있더라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소개하기 전 화자는 또다시 “이야기가 정확히 사실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예가 될 터이므로 “그것이 이야기를 전할 합당한 이유가 될 것”(100)이라고 사실성에 양보 조건을 단다. 그러나 이런 양보 조건 바로 뒤에 화자는 아래에서 보듯 사연의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를 마치 연극 대사처럼 현재형으로 제시한다. 기록의 정확성과 무관하게 독자들이 전염병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정보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처신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존: 하숙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러면 누가 널 받아줄지 모르겠다. 요즘은 사

람들이 서로 다 무서워해서 어디에서도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

토머스: 그렇겠지? 하숙집 사람들은 마음씨 좋은 이들이고, 나한테도 껍 잘해 줘.

하지만 매일 일을 하러 나가니까 위험하다면서, 집에만 숨어 지내며 아

무도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

존 : 그렇지, 시에 남기로 했다면 안전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지.

John. Turn'd out of your Lodging Tom! if you are, I don't know who will take you in; for People are so afraid of one another now, there's no getting a Lodging anywhere.

Tho. Why? The People where I lodge are good civil people, and have Kindness enough for me too; but they say I go abroad every Day to my Work it will be dangerous; and they talk of locking themselves up, and letting no Body come near me.

John. Why, they are in the right to be sure, if they resolve to venture staying in Town. (100)

지면상 제한된 예만을 검토했지만,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 및 동일시 여부를 조절하기 위해 디포는 작품 전체에서 대명사와 시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이는 문법적인 이유와 무관한 대명사 선택이나 시제 전환으로 이어진다. 어휘의 경우처럼, 대명사와 시제 역시 사료와 해석, 사실과 허구를 결합해 특정한 독서 효과를 생산하고자 하는 저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저자의 창작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선택이므로 이 역시 도착 언어에 반영되어야 할 번역 대상이지만, 영어와 비교해 대명사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고 따라서 영어의 대명사를 그대로 옮기면 어색할 뿐만 아니라 시제 구분 역시 영어처럼 선명치 않은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이 문체적 특징의 번역은 어휘 번역보다 어려운 과제이다.

세 편의 번역서가 앞서 제시한 예문 일부에서 언급한 대명사와 시제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자.

But even those wholesome reflections—which, rightly managed, would have most happily led ① the people to fall upon their knees, make confession of their sins, and look up to their merciful Saviour for pardon, imploring His compassion on them in such a time of their distress, by which ② we might have been as a second Nineveh—had a quite contrary extreme in ③ the common people, who, ignorant and stupid in ④ their reflections as ⑤ they were brutishly wicked and thoughtless before, were now led by ⑥ their fright to extremes of folly. (29)

이러한 고민과 진실된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을 잘 선도하기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심 많은 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참회하며 구원과 은총을 기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④런던이 제 2의 니느웨에 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시기였다 하더라도, 모처럼 발현된 진실한 생각마저 일반 대중의 조류에 밀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⑥그들은 원래부터 돼먹지 않은 족속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천성인 불한당 소질을 버리지 못하고 멋대로 자행을 일삼았다. 즉 ③그들은 공포심에 휩싸인 나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엉터리 수작을 부리기까지 했다. (『연대기』 57-58)

그러나 이런 건전한 반성도 보통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제대로 이뤄지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로운 구세주에게 용서를 빌면서, 자칫 제2의 니느웨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절망의 시기에 구세주의 동정을 간구하도록 만들었을 텐데도 말이다. ①보통 사람들이 그 전에 잔인할 만큼 사악하고 생각이 없었던 까닭에 그런 반성마저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쪽으로 흘렀으며, 공포가 ⑤그들을 극도의 어리석음 쪽으로 이끌고 있었다. (『페스트』 58)

그러나 이런 환난의 시기에 올바르게 활용되었다면 은혜롭게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자비로운 구원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연민을 간청하게 함으로써 ①우리 런던을 두 번째 니느웨로 만들 수도 있었을 이런 유익한 상념도 생각이 어리석고 무지한 대중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에도 짐승처럼 거칠고 생각 없이 살던 ④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극도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질렀다. (『일지』 46)

가장 먼저 출간된 『연대기』의 경우 동일시의 대상인 ②의 대명사 “we”를 “우리”라는 표현 없이 ④의 “런던”으로 번역했다. ④와 ⑥의 3인칭 대명사 변형들은 ③과 ⑤에서처럼 “그들”로 번역했다. 『페스트』의 경우 ②의 “we”를 생략해 “자칫 제2의 니스웨가 될 수 있었던”의 주어, 즉 동일시의 대상인 “우리”를 번역문에 살리지 않는다. 영어 원문에는 없는 “자칫”이라는 부사어를 삽입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페스트』는 “제2의 니스웨”를 바람직한 런던의 운명이 아니라 피해야 할 런던의 운명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타락으로 신의 분노를 산 끝에 멸망할 뻔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은 니스웨가 아니라 신의 분노로 멸망할 뻔한 니스웨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번역의 경우 처음부터 동일시의 대상인 “우리”와 거리 두기의 대상인 “그들” 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 동일시의 대상을 오히려 거리 두기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한 대중을 지시하는 ③의 “the common people”은 ⑤에서처럼 “보통 사람들”로 번역하고 이들을 지시하는 ⑥의 3인칭 소유격을 ⑤의 “그들”로 옮겼는데, 반복하지만 3인칭 “그들”이 니스웨와 같은 운명을 가질 수도 있었을 “우리”와 갖는 차이점은 번역문에 표현되지 않는다. 『일지』는 ②의 “we”를 ⑥에서처럼 “우리 런던”으로 옮기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대중을 받는 ⑤⑥의 3인칭 대명사 변형들을 ③의 그들로 번역했다. 결과적으로 『연대기』와 『페스트』의 번역은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니스웨의 시민처럼 압박한 신의 심판 앞에서 속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와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들”을 원문처럼 대조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일지』는 원문의 “우리”와 “그들”을 “우리 런던”과 “짐승처럼 거칠고 생각 없이 살던 그들”로 대비적으로 옮겨 양자를 비교하려는 원문의 의도를 도착 언어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경우 앞서 밝힌 것처럼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대명사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후에 대조적인 수식 구문이나 설명 없이 “우리”와 “그들”을 대명사만으로 구분했다면 원문의 의도를 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디포는 대명사 사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지만, 한글 번역에서는 대명사 구분만으로는 그 의도를 살리기 어렵고 어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원문의 수식 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대조의 의미를 뚜렷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선명치 않은 기억이나 진위 확인이 어려운 소문에 생생한 감정이나 정보의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예들도 한글 번역에서 시제 구분만으로 작품의 의도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오래전 일이라서 사연이 분명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울음소리만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는 문장을 번역하며, 아마 그런 이유에서 세 번역서는 모두 아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원문에 없는 부사를 덧붙여 동사 시제 번역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현재성을 번역문에 반영하고 있다.

“I remember, and while I am writing this story I think I hear the very sound of it.”(50)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그런 외침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듣고 있다.” (『연대기』 97).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아니,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소리가 마치 내 옆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페스트』 96)

“그 소리들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일지』 80)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시제 사용 방식 역시 출발 언어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가져오는 선택이 문법 체계가 다른 도착 언어에서는 직역만으로 충분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원작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회상인 작품이 현재 시제를 주로 과거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정보의 유효성 혹은 과거 사건에 동반된 감정의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세 번역서 모두가 제시된 예에서처럼 이 의도를 표현할 수식어를 추가해 시제 번역을 보충한 것은 이런 적극적 개입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 4. 나가며

조재룡은 번역을 통해 원전의 삶이 갱신된다는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통찰을 빌어 재번역은 “지금-여기의 독서지평”(92)으로 기존 번역과 원문을 불러내 그것에 “다시’ 생명을 부여”(99)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언어·사회·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인 “지금-여기의 독서지평” 중 『전염병 일지』의 재번역을 불러온 지금 이곳의 독서 지평은 단연 2020년 시작되어 2023년까지 계속된 전 지구적 코비드(Covid)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출간된 『페스트』의 번역자이자 출판사 부글북스의 대표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되었”(정명진)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일지』를 출간한 열린책들의 편집장도 “세계적인 규모의 팬데믹 시대를 맞아 그와 비슷한 체험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고전”을 찾았으며 “사회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감염병”에 대한 고전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권은경)해 『전염병 일지』의 재번역을 기획했다고 설명한다.

전례 없는 규모의 코비드 상황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을 고전에서 구하고 싶다면 『전염병 일지』는 실로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 중 하나일 것이다. 세계가 삼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 즉 전염병이 바이러스와의 싸움만이 아니며 구조적 불평등과 지도층의 무책임 같은 사회적 문제와의 싸움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전염병 일지』는 실증 자료와 가치 평가, 사료와 허구를 교차 직조하며 페스트를 불가해하고 대처 불가능한 불운이 아니라 합리적 이해와 보건 의료 및 사회 개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공적 재난으로 제시하려고 분투한다. 또 이를 통해 독자들을 계몽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특정한 실천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글의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할 때 후대가 ‘행동 지침’으로 삼기를 희망하며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이런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또 작품의 재번역을 불러온 지금 이곳의 ‘독서 지평’을 생각할 때 실증 자료와 해석, 역사와 허구를 교차 직조하며 인본주의적 지향을 실현하는 작품의 혼종 서사 문체 특징을 번역어에 반영하는 것은 더 중요한 번역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사실과 가치 평가적 해석을 동시에 포함한 어휘의 선택, 대상에 대한 동일시 여부를 결정하는 대명사 사용, 사연에 담긴 정보의 유효성 및 사연에 동반된 감정의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한 시제 사용 등은 특정한 독서 효과를 생산하기 위한 작품의 중요한 문체적 특징이며 작품의 형식과 주제를 동시에 전달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면상 제한된 예만을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출간된 3종의 번역은 논의된 작품의 혼종 서사 문체와 그 의도를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번역하기보다는 어휘, 대명사, 시제 별로 비교적 선별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번역문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작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혼종 서사 문체 특징을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번역문에 되살리는 것은 향후 재번역이 진지하게 고려할 과제로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sup>10)</sup>

#### Notes

- 1) 18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전염병 일지』가 역사, 허구, 혹은 역사적 허구로 수용된 양상을 추적하며 작품의 혼종 서사 양식을 둘러싼 학계의 해석을 잘 정리한 글로는 Mayer를 참조.
- 2) 본문의 모든 작품 인용은 백세이더가 편집한 노트 판본 영어 원문을 글쓴이가 번역한 것이다. 국내 번역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번역본 제목과 인용 면수로 출처를 밝히고 영어 원문을 번역해 인용한 경우에는 영문판 면수만을 밝힌다.
- 3)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이성호는 작품의 서술자가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갈등의 중심에는 세속화된 인본주의 서사와 전통적인 섭리주의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품의 화자인 “H. F.는 균형 잡힌 르포 작가로서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투영하고 있지만, 역병이라는 불가해하고 통제 불가능한 딜레마이자 공포 앞에서 [신적] 섭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성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호는 인본주의적 서사로서의 특징들에 주목하는 한편 작품을 신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걷는 서술자의 “영적 자서전”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성호의 제안처럼 『전염병 일지』는 단지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와 섭리주의 서사 모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장르적 불확정성(generic indeterminacy)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본 논문은 인본주의 서사로서의 지향이 작품의 혼종 서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요 동기임을 논증하고 이 지향을 실현하는 작품의 문체적 특징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논증이 작품의 형식적 복잡성을 단순화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논문의 목적은 작품을 하나의 서사 양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서사 양식 중 주도적 서사 양식이 생산한 문체 특징에 주목하고 그 특징의 번역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인본주

의 서사로만 규정할 수 없는 작품의 형식적이고 주제적인 복합성과 작품 내 여러 서사 양식 간 공존과 긴장을 상기시켜 준 이성호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 4) 전염병을 지칭하기 위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의 빈도는 “plague”가 262회로 가장 높고 “distemper”가 151회로 두 번째로 높다. “sickness,” “illness,” “fever,” “disease,” “contagion” 등은 큰 의미 없는 빈도 차이를 보이며 호환적으로 사용된다.
- 5) 이후 『연대기』로 표기.
- 6) 이후 『페스트』로 표기.
- 7) 이후 『일지』로 표기.
- 8) 중국과 한국 모두 역기를 쫓는 축역(逐疫) 의식을 범국가적 벽사의례로 시행한 오랜 역사가 있다. 중국과 한국의 축역 의식 기원과 전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나례” 참조.
- 9) 서정은이 열린책들에 보낸 첫 완역 원고 제목은 『역병 일지』였다. 그러나 출판사 열린책들에서는 최초 국문 번역서 제목이 『전염병 연대기』이고 독자들이 그 제목에 익숙하므로 제목을 바꾸면 검색에 어려움이 있어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목 수정을 권유했고 번역자는 동의했다(서정은). 유명숙은 2010년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된 『워더링 하이츠』의 번역자 해설에서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의 소설 제목 *Wuthering Heights*가 저택 이름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이므로 음차해서 『워더링 하이츠』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며 『폭풍의 언덕』이라는 기존 제목이 어떤 점에서 작품에 대한 오독을 불러올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유명숙 553-55). 유명숙의 제안이 상당한 반항과 동의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나온 2010년 이후 출간된 국내 번역들 모두가 작품 제목을 여전히 『폭풍의 언덕』으로 옮겼다. 유일한 예외는 2023년 윤교찬 번역으로 아르테에서 출간된 번역본인데 유명숙과 같이 제목을 『워더링 하이츠』로 옮겼다. 더 정확한 번역이 언제나 더 좋은 번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초 번역서 제목이 널리 알려진 경우, 그 번역에 오류가 있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지도, 홍보, 판매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번역 수정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로서 재번역의 구속 조건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 10) 유한내는 “기존 번역에 무언가 결함이 있거나 결여[가] 있기 때문에 재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결여 패러다임”(97)과 재번역을 “새로운 번역자의 새로운 해석과 선택”(108) 산물로 보는 “다양성 패러다임”(97)을 구분하면서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재번역이 반드시 이전 번역의 결여를 보완할 원인에 충실한 방향으로 번역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100), “‘옮고 그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때, 다양한 번역, 상생의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111)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한내의 의견에 동의하며 『전염병 일지』의 혼종 서사 문제 번역이 향후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제안 역시 기존 번역의 결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문제를 포함해 작품의 여러 요소가 드러내는 의미 층위를 도차 언어에 반영할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번역에 대한 초대로 해석되기를 바란다.

## 인 용 문 헌

권은경. 서정은에게 보낸 이메일. 2023년 7월 10일.

“나래.”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12584&cid=50221&categoryId=50233>. 2023년 7월 16일 접속.

디포, 다니엘. 『전염병 연대기』. 박영의 역, 신원문화사, 2006.

디포, 다니엘. 『페스트, 1665년 런던을 휩쓸다』. 정명진 역, 도서출판 부글북스, 2020.

디포, 다니엘. 『전염병 일지』. 서정은 역, 열린책들, 2023.

서정은. 열린책들 『전염병 일지』 담당 편집자 박지혜에게 보낸 이메일. 2022년 9월 15일.

유명숙. 「에밀리 브론테의 『위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을 넘어서」. 『위더링 하이츠』, 유명숙 역, 을유문화사, 2010, 549-68쪽.

유한내. 「재번역을 재고하다: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번역학 연구』, 8권 1호, 2017, 95-116쪽.

이성호. 「르포와 허구 사이: 다니엘 디포의 『역병 일지』에 사용된 혼종 서사 문체 번역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년 12월 17일, Online.

정명진. 서정은에게 보낸 이메일. 2023년 7월 11일.

조재룡 외. 「재(再)-번역은 무엇인가」. 『民族文化』, 50권, 2017, 73-104쪽.

Defoe, Daniel.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Edited by Paula R. Backscheider, W. W. Norton & Company, 1992.

Landa, Louis A. “Religion, Science, and Medicine in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Oxford English Novels, 1969, pp. 269-85.

Laqueur, Thomas W. “Bodies, Details, and the Humanitarian Narrative.” *The New*

*Cultural History*, edited by Lynn Hunt, U of California P, 1989, pp. 176-204.

Mayer, Robert. "The Reception of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and the Nexus of Fiction and History in the Novel." *ELH*, vol. 57, no. 3, 1990, pp. 529-55.

"Plague, n."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P, 2023,

<http://lps3.www.oed.com.libproxy.snu.ac.kr/view/Entry/144957?rskey=PcldkG&result=1&isAdvanced=false#eid>. Accessed 15 July 2023.

## Abstract

### Translation of the Hybrid Narrative Style of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1722): With a Focus on the Humanitarian Narrative Features

Jung Eun Se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aniel Defoe's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hybrid narrative that intertwines history and fiction, merging empirical evidence with evaluative interpretations. This paper posits that the hybrid narrative style utilized in the text serves the author's intention to achieve specific humanitarian narrative objectives: employing empirical evidence to enlighten readers and guide them towards interventionist actions. Furthermore, this study conducts an analysis of the stylistic elements within the work that embody this narrative orientation. Emphasis is placed on the author's deliberate choices in vocabulary, the use of pronouns, and shifts in tense. I argue that these stylistic components play important roles in bringing the central theme of the text to life and, therefore, warrant careful consideration in translation into Korean. Lastly, this research examines three published Korean translations of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to evaluate how effectively they capture these stylistic features in the source language and convey them in the target language.

**Key Words:** Daniel Defoe,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hybrid narrative, humanitarian narrative, translation of style

논문접수일: 2023.09.24

심사완료일: 2023.10.16

게재확정일: 2023.10.21

이름: 서정은

소속: 한국교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이메일: jseo@ut.ac.kr